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신예람	소속(학부/과)	기계공학과
파견 학기	2023-2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Hochschule Heilbronn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유럽 여행 이후에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고, 해외 대학에서의 생활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 준비

상대교 서류 준비는 그쪽에서 보내는 메일을 잘 확인하고 기간만 잘 맞춘다면 크게 힘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

비자는 현지에서 받거나 한국에서 받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현지 도착 이후 3-4일 내로 안멜둥이라는 거주지 등록을 하게 되고, 거주지 등록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리스트를 줍니다. 안멜둥 후에 비자 발급 심사(?) 예약을 잡고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이 예약을 빠른 날짜에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3-4일간 수시로 들어가보면 비교적 이른 날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8시쯤, 밤 12시쯤 들어갔을 때 취소 예약표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자 발급 심사때 서류를 누락했었는데, 본인이 미처 못 가져간 서류가 있더라도 일단 가서 잘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네 이메일로 누락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공권 구입

저는 키세스에서 폴란드 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학생 할인으로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보다 저렴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경우 일정 변경 수수료가 무료(LOT 기준)인 반면 키세스를 통해 구입할 경우 변경 수수료가 듅니다. 저는 귀국 전 일정을 2번 바꾸는 바람에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과 최종적으로 항공권에 들인 비용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강신청

HHN에서는 학기 초 수강신청은 따로 없이 splan이라는 사이트에서 본인 시간표를 짜서 강의를 듣다가, 시험 등록 기간에 시험을 등록함으로써 수강신청을 대신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에 나눠주는 가이드북이 있긴 한데 registration/deregistration 방식이 나눠준 거랑 좀 달랐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각 faculty의 international 담당 부서로 이메일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

기숙사 신청도 서류 제출 기간에 같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HHN은 총 4개의 캠퍼스가 있고, 아마 우리 학교에서 파견되는 학생들은 모두 빌둥스 캠퍼스와 손하임 캠퍼스가 함께 있는 하일브론으로 파견될 것 같습니다. 빌둥스는 business 계열이나 언어 계열의 강의가 열리고 손하임에서는 공대 강의를 열립니다. 둘다 크지 않은 캠퍼스고 규모는 비슷하지만 빌둥스 캠퍼스가 신식 건물입니다. 기숙사에서는 손하임이 걸어서 10분으로 가까워요.

저는 겨울학기에 파견되어 해가 짧고 겨울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많아 아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학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여름학기에 갔을 것 같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전공과목은 출석을 체크하지 않지만 독일어, 영어 등의 언어 과목은 출석을 체크합니다. 영어 수업은 제가 드럽해서 모르겠지만 독일어 수업의 경우, 8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랄 테스트의 기회를 주셔서 출석률 80%를 넘지 않았음에도 final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들었던 독일어 수업의 이야기이고, intensive course나 다른 교수님, 학기에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Multibody simulation

여러 개의 body+joint로 연결된 시스템의 거동에 해석하는 식에 대해서 주로 배웁니다. simulink, simpack이라는 저희 과에서는 배우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웠지만 교수님이 잘 도와주셨습니다. 과목 자체가 생소했지만 한국에서는 배워보지 않았던 과목에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Design of experiment

석사과정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말 그대로 실험 설계에 대해 배웁니다. 매주 진행되는 수업은 아니지만 한번 수업할 때 오래 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의 수업을 제외하면 ilias라는 우리 학교의 강의지원시스템 같은 곳에 이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어 강의가 올라와있어 혹시 수업을 결석했더라도 수업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Human machine interaction

시험은 따로 없고, 학기에 5번정도밖에 수업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figma나 balsamic 등의 툴을 이용해 user friendly interface를 만들어야 하며, 매 수업마다 조별로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 발표들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결과물과 최종 레포트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 지식이 거의 필요 없고 팀플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친절하십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2023년 27 건물 기준 기숙사 보증금은 450유로, 기숙사비는 342유로였습니다. 여행을 제외하면 생활비의 대부분은 장바구니 비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서 어떤 걸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lidl, netto는 비교적 싼 편이고 edeka, kaufland는 가격대가 좀 더 있는 편입니다.

또한 저는 사보험을 들어서 공보험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보험에 드는 지출을 반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교류원 사이트에 나와있는 다른 분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예전에는 더 저렴한 것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뀐건지 hhn에서는 mawista 기준으로 60유로짜리 mawista student comfort만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사보험을 들고 싶으시다면 공보험사에 이메일로 본인의 사보험 가입 서류를 보내고 exemption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겨울에 갈 경우 intensive course라는 독일어 집중 코스가 있고 교환학생 대상으로 근교 여행이나 공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주관하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안 나가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저는 합창단을 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이 독일어로 말해서 힘들었지만요...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파견 학교를 제외한 곳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웬만하면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일 공공기관은 사용 언어를 독일어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영어로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아서 독일어로 보냈더니 하루만에 답장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전기장판(겨울학기 준비물로 전기 장판을 많이 추천하시는데 27 기준 필요 없음, 단열이 꽤 잘 됨) 멀티탭(책상에 콘센트 4개, 침대 머리맡에 2개로 콘센트 넉넉함)

겨울에 가져가면 좋을 것: 핫팩(학교 다닐 땐 필요 없는데 북부로 여행가실 계획 있으시면 가져오길 추천드려요 독일에도 핫팩이 있긴 하지만 은근히 구하기 어렵고 크기가 작아요)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여기 있으면서 안 해서 후회한 적은 많지만 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학기라 한 학기로 마무리한 점이 아쉽지만 교환학생 전에는 거의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여러 방면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